

베트남 2023: 경제 부진, 외교 약진, 정치 정진

김용균* · 백용훈**

국문초록

베트남의 2023년은 경제 부진, 외교 약진, 정치 정진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낮아 5%대에 그쳤다. 글로벌 총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 수출입 부진과 부동산·건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외교 관계의 다양화, 다방화” 노선을 실천하며 특히 미·중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CSP)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보반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고, 정치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혁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베트남, 2023년, 대나무 외교,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 주저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장,
yongkyunkim@snu.ac.kr.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200-20200126).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
beakyh@hanmail.net.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1092544).

I . 머리말

베트남의 2023년은 경제 부진, 외교 약진, 정치 정진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낮아 5%대에 그쳤다. 글로벌 총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 수출입 부진과 부동산·건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외교 관계의 다양화, 다방화” 노선을 실천하며 특히 미·중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CSP)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보반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고, 정치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혁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의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베트남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머리말에 이은 2장에서 작년 베트남 경제성장이 5%를 가까스로 넘는 성장률에 그친 경제 부진의 원인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작년 한 해 대나무 외교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베트남의 외교 분야 성과를 다룬다. 특히 베트남이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지 소개한다. 4장은 2023년 어떤 분수령을 지났다고 느끼게 하는 베트남 국내 정치의 변화와 지속에 관해 설명한다. 작년을 지나면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정치 체계 혁신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2024년 전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II. 경제 부진

베트남 주요 언론들은 2023년 베트남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포괄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Xuân Dung, Hoàng Dương, and Hoàng Hiệp 2023; Vietnam+ 2023). 연말에 발표되는 경제-사회 부문의 주요 통계 수치들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고, 국가신용등급과 국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환율 및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DCSVN 2023).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제기된 불확실성이 2023년의 시작과 함께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백용훈 2023).

2024년 1월 5일 개최된 2023년 사회경제발전 계획에 관한 이행 및 결과 보고(아래 <표 1> 참조)에 따르면, 총 15개 부문 가운데 경제, 노동 관련 5개의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05%로 목표치인 6.5%보다 낮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GDP 규모는 4,300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022년 대비 160달러 증가한 4,284 달러로, 목표치인 4,400달러를 실현하지 못했다. 사회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65% 증가에 그쳤고, 농업노동 비중 역시 26.9%로 목표치인 26.2%를 달성하지 못했다.

<표 1> 2023년 사회경제지표 목표치와 실현 여부

| No | 지표 | 단위 | 2023년 | 2023년 | 실현 여부 |
|----|---------------------------------|----------|--------------|------------|----------|
| | | | 목표치 | 12월 기준 | |
| 1 | 경제성장률(GDP) | % | 6.5 | 5.05 | 미달성 |
| 2 | 1인당 GDP | US\$ | 4,400 | 4,284 | 미달성 |
| 3 | GDP에서 제조가공업 비중 | % | 25.4-25.8 | 23.88 | 미달성 |
| 4 | 연평균 물가상승률(CPI) | % | 4.5 | 3.25 | 초과 |
| 5 | 사회노동생산성 증가율 | % | 5.0-6.0 | 3.65 | 미달성 |
| 6 | 농업노동 비중 | % | 26.2 | 26.9 | 미달성 |
| 7 | 숙련노동자비율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노동자 비율) | % | 68 (27.5) | 68 (27) | 달성 |
| 8 | 성/시 지역 실업률 | % | 4 이하 | 2.73 | 달성 |
| 9 | 빈곤가구 감소 수준(다차원지표 기준) | % 포인트 | 1-1.5 | 1.0 | 달성 |
| 10 | 1만명 당 의사 수 | 명 | 12 | 12.5 | 초과 |
| 11 | 1만명 당 병상 수 | 개 | 32 | 32 | 달성 |
| 12 | 의료보험 가입 비율 | % | 93.2 | 93.35 | 초과 |
| 13 | 새농촌 표준을 달성한 마을 수 | % | 78 | 78 | 달성 |
| 14 | 도시 생활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비율 | % | 95 | 95 | 달성 |
| 15 | 중앙폐수처리시스템을 갖춘 산업공단 비율 | % | 92 | 92 | 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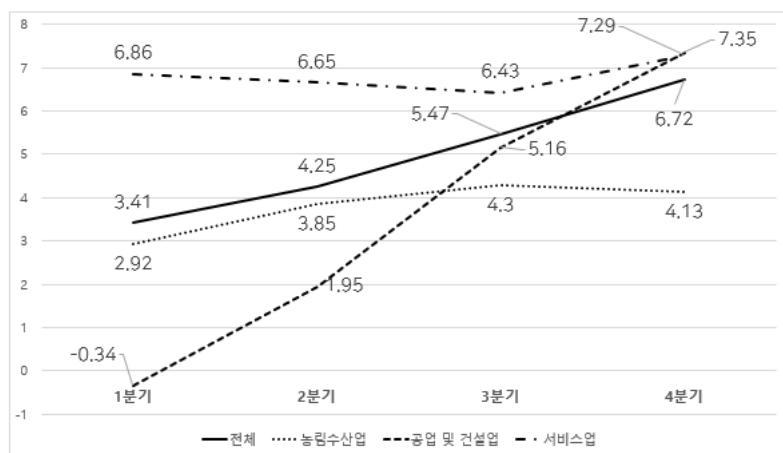
자료: Anh Nhi(2024).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3.41%, 2분기 4.25%, 3분기 5.47%, 4분기 6.72%를 기록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Tổng cục Thống kê[이하 베트남통계총국] 2023/12/29). 2023년 베트남 경제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총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외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1-3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 대외 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컸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약화와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웠다.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4차례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수출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가속화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응우옌푹쫑 총비서가 주도해온 반부패운동이 지속되고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공공투자를 위한 자금 유입이 얼어붙었고, 그 결과 11월 말까지 공공자금 지출은 약 190억 달러로 목표의 65%에 불과한 수준을 기록했다(Khanh Vu 2023). 많은 업체가 심각한 자금난 속에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했고, 그중 수백 개는 도산에 내몰렸다. 결국 수출과 내수 양 부문의 주요 업종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큰 타격을 입으며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4분기 특히 연말에 상업 활동과 소비자 서비스가 활발한 것에 힘입어 2023년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Vũ Khuê 2023).

<그림 1> 2023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분기별/부문별

(단위: %)



자료: 베트남통계총국(2023/12/29).

베트남의 상품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지만(백용훈 2023:

40) 2023년에는 수출입 상대국에서의 소비 수요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 규모가 감소했다. 2023년 상품 수출입의 경우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4.4%와 8.9% 감소한 3,555억 달러와 3,275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28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수출 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대규모 흑자는 동(VND) 통화에 도움이 되지만,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것은 제조업 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므로 2024년 상반기에도 수출용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 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26.9%와 73.1%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내 경제부문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955억 5천만 달러를, 외국인투자부문(원유 포함)은 전년대비 5.8% 감소한 2,59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 가운데 가공공업품목은 88.3%인 3,137.3억 달러를, 상품 수입 가운데 자본재군은 93.8%인 3,073.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상품 수출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968억 달러), 최대 수입시장은 중국(1,116억 달러)으로 유지되고 있다(아래 <표 2> 참조). 수출의 경우 미국이, 수입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6대 수출시장 가운데 대(對) 중국 수출이 유일하게 증가했고, 이외 아프리카(6.4%), 동유럽, 북유럽, 서아시아 국가(7.5%)로의 수출액이 증가함으로써 시장 다각화와 신규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다(베트남통계총국 2024/01/03).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수출 품목 가운데 전자, 컴퓨터 및 부품과 운송 수단 및 부품만 전년 대비 각각 3.3%와 14.6% 증가했고 이외 전화 및 부품, 기계 장치, 섬유, 신발,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전자, 컴퓨터 및 부품만 7.7% 증가했고 기계 장치, 직물, 철 등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아래 <표 3> 참조).

<표 2> 주요 국가별 상품 수출입 규모(2023년)

(단위: 십억 달러, %)

| 상품 | 수출입 | 총액 | 수출 | 전년 대비 증감률 | 수입 | 전년 대비 증감률 |
|-----|-------|------|-------|-----------|-------|-----------|
| 중국 | 173.3 | 61.7 | 6.4 | 111.6 | -5.9 | |
| 미국 | 110.6 | 96.8 | -11.6 | 13.8 | -4.6 | |
| 한국 | 76.1 | 23.5 | -3.4 | 52.6 | -15.5 | |
| 아세안 | 73.7 | 32.7 | -4.1 | 41.0 | -13.3 | |
| EU | 59.1 | 44.1 | -5.9 | 15.0 | -2.5 | |
| 일본 | 45.3 | 23.5 | -3.2 | 21.8 | -6.6 | |

출처: 베트남통계총국(2024/01/03)

<표 3> 100억 달러 이상 품목별 수출입 규모(2023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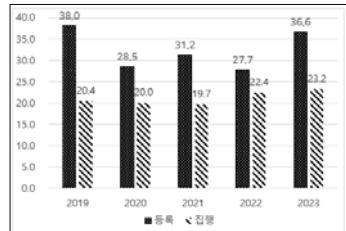
| 수출 | | | 수입 | | |
|--------------|--------|-----------|--------------|--------|-----------|
| 품목 | 금액 | 전년 대비 증감률 | 품목 | 금액 | 전년 대비 증감률 |
| 전자, 컴퓨터 및 부품 | 57,340 | 3.3 | 전자, 컴퓨터 및 부품 | 88,190 | 7.7 |
| 전화 및 부품 | 53,188 | -8.3 | 기계 장치 | 41,478 | -8.1 |
| 기계 장치 | 43,176 | -5.6 | 직물 | 13,074 | -11.1 |
| 섬유 | 33,226 | -11.6 | 철 | 10,542 | -11.6 |
| 신발 | 20,374 | -14.7 | | | |
| 운송수단 및 부품 | 13,740 | 14.6 | | | |
| 목재 및 목제품 | 13,424 | -16.2 | | | |

출처: Huyền Vy(2023/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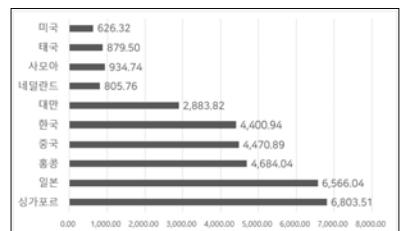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어두움 속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희망의 빛이었다.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도 전세계에서 12계 단 상승하며 집계한 국가들 중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Viet Nam News 2023/05/30). 2023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366.6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19년에 근접하는 수준이다(<그림 2> 참조). 이 가운데 집행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32억 달러다(Nguyen Xuan Hai and Le Qiynh Trang 2024). 신규 프로젝트와 등록액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대상 국가로 안전하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베트남 투자는 특히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등 범중국계 투자가 주도했으며(<그림 3> 참조), 투자 분야 중 제조업과 부동산업이 각각 64.2%와 12.7%를 차지한다.

<그림 2> 외국인투자자본 추이
(2019-2023)
(단위: 십억 달러)



<그림 3> 국가별 외국인투자
(2023)
(단위: 백만 달러)



출처: 베트남통계총국(2024/01/09)

베트남은 2023년에 신산업 분야 개발, 과학기술 촉진, 디지털 혁신, 녹색 경제, 공유 경제 등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해로 평가받는다. 국가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 데이터, 식별 및 전자 인증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프로젝트(프로젝트 06)를 지난 2년간 실행해왔다(Hà Văn 2023). 국가혁신센터(NIC)를 출범시켰고, 전세계 주요 파트너 및 기업과의 계약 및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이 반도체 분야에서 도약하는 해였다(Như Quỳnh 2023).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2023년 7월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200만 톤 이상의 희토류 광석을 개발 및 처리하고 연간 최대 6만 톤에 달하는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물 부문 마스터플랜을 발표(866/QĐ-TTg 2023/ 07/

18)했다.

베트남과 일본의 희토류 산업 협력이 일본과 진행된 바 있지만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다른 추출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이유로 인하여 더디게 진행되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베트남이 희토류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국가가 될 수 있다면 베트남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희토류 산화물은 전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등 중요 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미사일, 레이더, 스텔스 항공기 등 첨단 무기 생산에도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차원뿐만 아니라 2045년 까지 산업화되고 고소득 경제가 되려는 베트남의 야심찬 계획을 이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능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광석 처리 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Le Hong Hiep 2023).

베트남은 미국, 일본과 차례로 포괄적 전략협력으로 관계를 격상하면서 미래 세계 첨단 제조 중심지로 기대된다. 복잡한 세계 지정학적 맥락에서 베트남은 기술 부문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베트남에 6개 공장과 1개 연구개발 센터를 투자했고 애플(Apple), 구글(Google), 델(Dell), 아마존(Amazon)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있다. 베트남이 국내 반도체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과 인력양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경제 부진 속에서도 농업 부문의 수출은 2022년에 이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상품 수출입 가운데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커피, 쌀, 채소, 캐슈넛, 해산물, 목제 품 등의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은 6개에 달한다. 과일 및 채소의

수출액은 56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초 예상했던 연간 40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베트남 쌀 수출량 역시 36% 이상 증가한 800만 톤, 44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기록을 세웠다. 베트남 쌀 종자는 세계 최고의 쌀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이스라엘과 양자간 무역협정(VIFTA)을 체결했고 베트남-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베트남-UAS 등과의 FTA를 협상 중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순환적 농업 생산 모델과 관련된 정보 기술 및 디지털 기술 솔루션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도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베트남통계총국 2024/01/03).

III. 외교 약진

2023년은 중심을 잘 잡고 대외 변화에 강직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가 전성시대를 구가한 한 해였다. 대나무 외교는 호찌민 주석이 남긴 베트남 외교 노선 교훈을 표상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응우옌푸쫑 베트남공산당 총비서가 2016년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이후 이 개념은 2021년 12 월 베트남 최초로 개최된 전국외교대회에서 베트남의 외교 정책 지도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쫑 총비서는 베트남 외교의 특징을 “부드러우면서 혁명하지만 끈질기고 단호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이지만 일관되고 용감하며 탄력적이며”, “단합되고 인도주의적이지만 단호하고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다”라고 대나무의 특성에 빗대어 설명하였다(Linh Ha and Hong Nhong 2023).

베트남이 추구하는 대나무 외교는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외유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외교의 ‘외유’적 성격은 베트남이 개혁 개방 이후 일관되게 추구해온 “모든 나라의 친구,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노선 및 “외교 관계의 다양화, 다방화” 원칙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외교 관계 형성을 통해 자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 주요 외교 사안에서 핵심 국익을 관철해 온 것이 ‘내강’의 모습이었다(김용균 2022).

어느 한 편에 기울지 않고 적대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외교 원칙에 따라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국방정책을 견지해온 베트남은 동맹 관계를 만들지 않는 대신 2000년대 들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 세계 십수 개의 국가와 다양한 수준의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2008년에는 중국과 동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를 의미하는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CSP)을 최초로 체결하였고, 4년 뒤인 2012년에는 러시아와 그리고 다시 4년 뒤인 2016년에는 인도와 CSP 관계를 맺으며, 인접 강대국 및 전통 우방국과 먼저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최근 2022년 12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한 데 이어 베트남은 작년 9월에는 미국과 그리고 11월에는 일본과 각각 CSP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 한·미·일 3국과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로써 베트남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양 진영을 형성하는 주요국 6개국과 모두 최고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내며 양축을 연결하는 전략적 연결국가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작년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준의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CSP로 일거에 두 단계 격상하는 파격을 연출한 베트남은 바로 3개월 뒤 12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하노이로 맞아들여 이미 최고 수준의 양국 관계를 “미래

공유 공동체”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간 한·미·일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CSP로 인해 ‘상대적’으로 격하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베·중 관계의 특수 지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대내외에 확인시켰다(Vu Khang 2023b).

미국과의 관계 격상은 작년이 양국 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는 상징성을 살려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실 포괄적 파트너십이 베트남이 10여 개의 국가와 맺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보다 아래의 3급 관계라는 점에서 미국이 갖는 비중은 물론, 기존의 양국 공식 관계가 특히 군사·안보 영역에서 2014년 이래 크게 심화한 실제 협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현실화’하자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베트남은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공식 명칭에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일 자체를 애써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그것이 자칫 베트남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선에 합류한다는 신호로 읽히는 불필요한 중국 측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중국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확신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베트남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일의 원칙으로 삼아온 외교 정책이었다.

중국으로서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무역 제재 등 미국의 봉쇄 압박이 거세지자 베트남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왔다. 남중국해 문제로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손상이 생긴 상황에서 영토 분쟁 문제를 계속 강압적 방식으로 처리하다간 자칫 베트남을 미국 측 영향권 아래 빼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노골적인 도발을 삼가는 한편 사회주의 우방으로서 베트남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베트남을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미

래 질서로 제시한 중국 주도의 “운명공동체”에 동참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하는 중국공산당 당대회 직후 북경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도 당시 한·미·일과 관계 강화를 논의 중이던 베트남의 공산당 총비서 응우옌푸쫑이었다. 이때 베트남은 앞으로 한·미·일과 맷을 관계 격상에 대해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양국 관계의 이후 가능한 격상 방식에 대해 양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아시아 지역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로부터 경쟁적인 구애를 받아온 베트남은 그동안 몸값을 올릴 대로 올리다가 2023년 들어 두 나라 정상을 하노이로 불러 양측 모두로부터 상당한 투자와 지원 약속, 외교 현안에 관한 양해 및 양보 등을 받아내며 비싼 값에 관계 격상에 합의하는 눈부신 외교적 승리를 끌어냈다(Vu Khang 2023a). 특히 최근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베트남 정부는 미국 정부 및 구글, 인텔, 글로벌파운드리 등 미국 유수의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관련 분야 투자, 기술 이전, 인재 육성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London 2023).

때마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앤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가 박닝성에 16억 달러를 투자해 지은 반도체공장의 준공식도 열렸다. 그밖에 반도체 팹리스(fabless)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Marvell Technology), 그리고 세계 3대 전자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의 하나인 시놉시스(Synopsys) 역시 호찌민 시에 반도체 설계 및 인큐베이션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디자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Nvidia)도 베트남의 FPT, 비엣텔(Viettel), 빙그룹(Vingroup)

과 함께 AI 반도체 분야 협력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알려졌다. 실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이 12월 하노이에 와서 호아 락(Hoa Lac)에 새로 연 국가혁신센터(NIC)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베트남 현지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생성형 AI 기반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가 가장 원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Ebrahimi 2023).

한편,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노이 방문 동안 “운명공동체”的 표현을 순화한 “미래 공유 공동체”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베트남과 중국은 1999년 합의했던 양국 관계 16자 원칙(장기안정, 미래지향, 친선우정, 포괄협력)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6개 원칙에도 합의했다. 여기에는 “양국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안보협력을 실질화하며, 실무협력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기초를 강화하며, 다방면 협조를 심화시키고, 차이의 관리를 개선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양국 간 첨예한 이슈인 해양 영토 분쟁에 관해 양국은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장기적 기본 원칙을 찾아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맺은 이러한 합의는 이웃 강대국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유화 정책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을 적대시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 중국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래서 무력 억지라는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나무 외교 원칙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베트남은 핵심 안보뿐만 아니라 철도, 5G 네트워크, 해저 데이터 센터, 인공위성 지구국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중국과 36개 항목에 걸친 상호협력에 합의하며 많은 실익을 챙겼다.

2023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은 강대국 패권 경쟁의 틈바구 속에 놓여있는 지정학적 중간국이 어떻게 미·중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으며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작년 베트남은 “외교 관계의 다양화, 다방화” 노선을 실천하기 위해 바쁜 한 해를 보냈다. 2023년은 베트남전쟁 종결을 약속한 파리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자 당시 북베트남은 그때까지 대체로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되었던 외교 관계를 서방 세계로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해에만 베트남은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20개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따라서 2023년은 이들 국가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다. 앞서 언급한 작년 일본과의 CSP 격상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작년 베트남은 역시 수교 50년이 된 싱가포르와 호주와도 CSP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한편, 내년에 수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될 인도네시아와도 CSP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베트남은 이웃 강대국 중국과 최우선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안심시키는 한편, 러시아, 인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국들을 모두 최고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Nguyen Hung Son 2023). 2023년은 베트남의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한 해였다.

IV. 정치 정진

1년 내내 베트남이 국제 외교무대의 중심에 있다 보니 지난해 대

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정치인은 국가수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보반트엉 국가주석일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제12차 당대회에서 당시 45세라는 대단히 젊은 나이로 정치국에 입성한 트엉 주석은 2021년 1월에 열린 제13차 당대회에서 당서열 5위에 해당하는 비서국 상임 비서로 임명되며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던 그가 작년 새해 벽두부터 베트남 정국을 뒤흔든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 중도 사임 사건 이후 52세의 나이에 서열 2위인 국가주석 자리에 등극하며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 80세가 되는 쪽 총비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 정치국원이 대부분 65세 이상이고 일부 상대적으로 젊은 측에 속하는 경우가 60세 전후의 나이라는 점을 봤을 때 베트남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대 초반의 국가주석이 나왔다는 사실은 베트남 정가에 상당한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트엉 주석은 작년 한 해 화려하기만 했던 베트남 외교무대에 데뷔해 젊고 능력 있으면서 겸손하고 품위를 갖춘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로써 트엉 주석은 응우옌푹쪽 총비서가 최종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후, 즉 ‘포스트 쪽 시대’를 이끌 차기 (혹은 최소한 차차기) 후보 선두 주자의 입지를 확실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Strangio 2023a).¹⁾ 그가 아직은 너무 젊고 성 인민위원장 역임 등 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안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쪽 현 총비서, 그 이전의 농득마잉(Nong Duc Manh) 전 총비서, 또 그 이전의 레카피에우(Le Kha Phieu) 전 총비서 모두 정부 운영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1) 저자 중 한 명이 인터뷰한 다수의 현지 학자 및 전현직 관료들의 상당 부분 일치된 의견이었다(하노이, 2023년 7월~12월).

출생은 북부(하이즈엉)지만 남부에서 성장해 남부 출신으로 여겨지는 그가 단 한 번도 북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총비서가 된 적이 없는 과거 전통을 과연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Hai Hong Nguyen 2023b).

지난해 1월 18일 폭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베트남공산당 역사에서 국가주석의 중도 사임이 전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총 총비서 2기에 수상, 3기에 주석을 이어 맡으며 7년 넘게 사실상 이인자 위치에 있던 인물의 실각이라는 점에서 공산당 내 권력 구도에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Quynh Le Tran 2023).

폭 전 주석이 사임하기 2주 전인 2023년 1월 5일 정치국원인 팜빙 밍(Pham Binh Minh) 부수상 겸 외교부 장관이 보건부 장관 출신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했던 부득담(Vu Duc Dam) 부수상과 함께 동시 경질되며 이미 대규모 숙청 바람이 예고되었다. 이번 숙청은 2022년 베트남 사회를 뒤흔든 2건의 코로나 대응 관련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베트남 정부는 자체 진단 키트 개발에 착수했다. 이때 진단 키트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회사가 비엣아(Viet A) 기술 주식회사였는데, 입찰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부와 보건부 관료 수십 명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여름 두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여기에 연루된 60여 명이 기소되어 재판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이 있는 부득담 부수상이 옷을 벗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외교부가 연루되어 있었다. 코로나로 귀국길이 막힌 해외 거주 자국민들의 입국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총 800여 편의 특별수송기를 편성해 운영했다. 약 20만 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특별 입국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나치게 비싼 항공권 가격

으로 논란이 일었다. 사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 여행사 등 민간업자들이 외교부, 보건부의 고위 관료들에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따낸 뒤 특별 입국 외에 달리 선택이 없는 자국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두 명의 차관, 전 대사 등 50여 명이 기소돼 재판받게 되었다. 팜빙밍 부수상 겸 외교부 장관은 정치국원이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Hai Hong Nguyen 2023a; Strangio 2023b).

그렇게 두 명의 부수상이 물러난 지 2주 만에 푹 국가주석이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두 사건 모두 그가 수상으로 있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다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의 부인과 처남 등 가족이 진단 키트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2022년 여름부터 들리고 있었다.²⁾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형 부패 범죄 혐의가 잡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진 사임의 형식으로 불명예 퇴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해석할 수 있다.

푹 전 주석의 퇴장으로 이제 정치국 내에서 쫑 총비서 개인의 권력 공고화 및 그가 이끄는 ‘당건설파’의 압도적 우위는 확고부동해졌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푹 전 주석은 2016년 제12차 당대회 때 쫑 총비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응우옌tan중(Nguyen Tan Dung) 전 수상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쫑 총비서의 연임으로 결론이 난 12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공산당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의 광풍이 몰아치며 수만 명의 당원이 징계받았고 수천 명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았다. 그중 중 전 수상계로 분류되

2) 베트남 정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현지 컨설팅 회사 경영자 및 로컬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이다(호찌민시, 2022년 7월).

던 전현직 정치국원, 중앙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출당되었다. 사실상 폭 전 주석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과거 중 전 수상계 고위지도급 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폭 주석의 작년 불명예 퇴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쪽 총비서 주도의 당 정풍운동, 이른바 “당 건설, 정돈” 사업이 적어도 최고 지도부 내 부패인사 (혹은 반대파) 숙청이라는 측면에서는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가 강하다.

“당 건설, 정돈” 사업은 경제 시스템 혁신인 도이마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정치 시스템이 그동안 이룬 경제 발전에 조응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지 못하면서 갈수록 베트남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공산당의 자기반성에서 시작한 정치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패 간부 축출 등 인적 청산이었지만, 이 정치 시스템 혁신 사업은 간부와 관료의 교육 및 인사 시스템 정비, 행정 및 사법 제도 개선, 제반 법제 정비,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등 광범위한 정치·행정 개혁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의 통치역량을 높이고 국가 거버넌스의 수준을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게 합리화, 선진화하려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당건설파”의 문제의식이다.

정치국 내 인적 청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쪽 총비서가 주도해온 “당 건설, 정돈” 사업 및 그 대표 사업으로 진행된 반부패 투쟁이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Strange 2023c). 여기에 쪽 총비서가 후계 원픽(one pick)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트엉 주석이 작년 화려하게 부상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기조가 2026년 14차 당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베트남 정치에 큰 불확실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은 2021년 2월에 5년 임기로 출범한 제13기 지도부가 3년

차가 되는 해였다. 보통 공산당은 이 3년 차에 중앙위원회의 정례 전원회의 중 한 번을 중간평가를 위한 자리로 만든다. 작년에는 5월에 열린 13기 중앙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중간평가 회의가 진행되었다. 여느 중간평가 때처럼 이번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3차 당대회 결의 사항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결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베트남공산당은 또 11기부터 중간평가 회의에서 정치국원과 비서 국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위원들의 신임 투표를 해왔다. 이번에도 중앙위원들이 총 21인의 정치국원(16명)과 비서국원 각각에 대해 “높은 신임”, “신임”, “낮은 신임”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베트남은 국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국회가 임명한 정부 고위직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공표되는 국회의 대정부 신임 투표와 달리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정치국원, 비서국원 대상 신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당대회 직전에 열리는 현직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인선 안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면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중간평가 회의에서 진행된 신임 투표 결과는 누가 유력한 차기 당권 후보인지 가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진위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총 185명의 중앙위원이 참여한 작년 신임 투표 결과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높은 신임”을 받은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총비서, 쯔엉 티마이(Truong Thi Mai) 비서국 상임 비서, 판반장(Phan Van Giang) 국방부 장관, 트엉 국가주석 순서로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팜밍 쟁(Pham Minh Chinh) 수상과 브엉딩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5위에 올랐다. 이렇게 6명이 90%가 넘는 “높은 신임” 비율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고 은퇴할 총 총비

서를 제외하고 이 5명 중에서 차기 총비서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마이 상임 비서는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고, 장 국방부 장관은 군부 인사인데다가 이번에 처음 정치국에 들어온 경우여서 두 사람 다 사실상 가능성성이 없다. 남은 셋 중에 낙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꽝 수상은 설령 임기를 마친다 해도 그것으로 은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³⁾ 따라서 유력 후보군이 총 총비서의 신임이 두터운 트엉 국가주석과 후에 국회의장 두 인물로 압축되는데, 전술했듯 이 작년 대내외에 존재감을 과시한 트엉 국가주석이 총 총비서의 전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23년은 정치국 내 인적 청산을 정리하고 총 총비서의 노선을 이어갈 유력한 차기 후보를 마련함으로써 베트남 정치가 정치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혁신 사업을 향후 수년간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정치 시스템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2023년 이룬 정치 개혁의 정진은 베트남의 미래 전망을 한층 밝게 만들고 있다.

V. 결론

2024년 베트남 경제는 대외 환경의 개선, FDI의 지속적 유입, 정부

3) 참고로 12기에서 실시되었던 신임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총 총비서가 1위, 응우옌티 김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이 2위, 전국우브엉(Tran Quoc Vuong) 비서국 상임 비서가 3위, 꽝 수상이 4위, 팜밍정 당시 당 조직위원장이 5위, 브엉당후에 당시 부수상은 9위, 보빈트엉 당시 당 선전위원장은 14위를 기록했다. 실제 13차 당대회의 지도부 선출 결과는 1위를 했던 총 총비서가 다시 총비서가 되었고, 4위 꽝 수상이 국가주석, 5위 꽝 당 조직위원장이 수상, 9위 후에 부수상이 국회의장이 되었다.

의 적극적인 공공투자에 힘입어 순항하리라 전망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세계 경기가 곧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중국 정부 역시 올해에는 성장 지향 재정 정책을 기조로 삼고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알려져 베트남 수출 부문은 작년과는 반대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인프라 분야에 대한 FDI와 공공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제조 기지로서 부동의 위상을 확립한 베트남은 2023년 이룬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대적 인프라 구축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투자 예산 확충과 집행률 제고, 그리고 민관 합작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 및 디지털 기반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제13기 지도부의 임기 반환점을 지나 이제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베트남공산당은 올해부터 서서히 2026년 초에 개최될 14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핵심은 당의 기초단위부터 성급 조직까지 차기 당의 핵심 대오를 구성할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인사 준비 작업이다. 연줄과 아울러 능력과 도덕성이 간부 승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만큼 각급 단위 지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투자 유치 및 경제성장 등 경제 분야 업적과 부패 통제 등 조직 관리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미진했던 각급 정부의 공공투자 집행률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높아지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점들 역시 대외 환경 개선과 더불어 2024년 베트남 경제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소이다.

한편 당대회 준비를 위한 기층 간부 검증 과정에서 중앙당의 “당 건설, 정돈” 사업 지속 기조와 맞물려 올해에도 크고 작은 반부패 숙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권력투쟁도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당권 투쟁은 주로 주요 유력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루머나 스캔들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에 이들 중 일부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현재 쫑 총비서의 공산당 장악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큰 분란이나 스캔들 없이 쫑 총비서가 낙점한 후계자로 차기 당권 인사 문제가 비교적 일찌감치 조용히 정리될 가능성도 크다.

2023년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누적 투자액 1위 국가다. 양국 교역 규모도 지난 해 800억 달러를 넘겨 베트남은 2년 연속으로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비단 투자와 무역뿐만 아니라 올해 수교 32년째를 맞는 한국과 베트남은 개발 협력, 인적 교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등 CSP 이름에 걸맞게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양국 모두에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 깊이 있는 상생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이미 대체 불가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그러한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는 계속 깊어질 것이다.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베트남 경제가 비록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베트남의 올해 전망과 향후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아 보인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언제나 능동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 한 덕분에 베트남은 현재 조성된 미·중 전략 경쟁 국면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왔다. 국가 통치역량 및 거버넌스 시스템 역시 당·국가 체제의 개혁 노력을 수년

째 지속해 온 결과 한층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및 거버넌스 혁신의 노력은 당분간 중단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미래가 밝은 이유이며, 한국이 계속해서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 관계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용균. 2022. “베트남의 중간국 외교.” 신범식 편.『아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서울: 진인진.
- 백용훈. 2023. “베트남 2022: 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동남아시아연구』 33(1): 31-64.
- An Nhi. 2024. “Năm 2023, toàn bộ các chỉ tiêu về xã hội đều đạt và vượt mục tiêu đề ra.” *Tạp chí Kinh tế và Đầu báo*. Jan 5. <https://kinhtevadubao.vn/nam-2023-toan-bo-cac-chi-tieu-ve-xa-hoi-deu-dat-va-vuot-muc-tieu-de-ra-27969.html>
- Dapice, David. 2023. “A Slower 2023 and Uncertain 2024 for Vietnam’s Economy.” *East Asia Forum*. December 14.
- ĐCSVN. 2023. “10 sự kiện, vấn đề nổi bật của đất nước năm 2023.” *Báo Điện tử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Dec. 28. <https://dangcongsan.vn/tieu-diem/10-su-kien-van-de-noi-bat-qua-dat-nuoc-nam-2023-656614.html>
- Ebrahimi, Arrian. 2023. “US Chipmakers March South as Vietnam Subsidizes Its Tech Future.” *The Diplomat*. September 17.
- Hà Văn. 2023. “Thủ tướng: Đề án 06 là một trong những 'điểm sáng' của chuyển đổi số trong 2 năm qua.”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December. 21. <https://baochinhphu.vn/thu-tuong-de-an-06-la-mot-trong-nhung-diem-sang-cua-chuyen-doi-so-trong-2-nam-qua-102231221143943991.html>
- Hai Hong Nguyen. 2023a. “A New Era of Turbulence and Uncertainty in Vietnamese Politics.” *The Diplomat*. January 4.
- _____. 2023b. “Vietnam’s New President: Key Takeaways for

-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The Diplomat*. March 17.
- Huyền Vy. 2023. “Xuất nhập khẩu năm 2023 ‘không như ý’, xuất siêu vẫn lập kỷ lục.” *VnEconomy*. Dec 29. <https://vneconomy.vn/xuat-nhap-khau-nam-2023-khong-nhu-y-xuat-sieu-van-lap-ky-luc.htm>
- Khanh Vu. 2023. “Vietnam 2023 economic growth slows to 5.05% as exports fall.” *Reuters*. Dec. 29.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etnam-2023-economic-growth-slows-505-2023-12-29/>
- Le Hong Hiep. 2023. “Vietnam’s Rare Earth Ambitions: Economic and Strategic Drivers.” *FULCRUM* Nov. 8. <https://fulcrum.sg/vietnams-rare-earth-ambitions-economic-and-strategic-drivers/>
- Linh Ha and Hong Nhung. 2023. “Vietnam’s Bamboo Diplomacy: From Tradition to Innovation.” *VietnamPlus*. May 18.
- London, Jonathan D. 2023. “A New Era is Dawning in US-Vietnam Relations.” *The Diplomat*. September 9.
- Nguyen Dieu Tu Uyen. 2023. “Global Headwinds Hinder Vietnam Hitting 2023 Growth Target.” *Bloomberg*. September 19.
- Nguyen Hung Son. 2023. “The US-Vietnam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s Not All About China.” *The Diplomat*. September 14.
- Nguyen Xuan Hai and Le Qiynh Trang. 2024. “Kinh Tế Vĩ Mô Việt Nam Năm 2023 Một Năm Vượt Khó – Thách Thức Vẫn Còn.” *Báo Nhân Dân*. Jan. 01. <https://special.nhandan.vn/kinh-te-Vietnam-nam-2023-mot-nam-vuot-kho-thach-thuc-van>

-con/index.html

- Nhu Quynh. 2023. “Vận hành Trung tâm Đổi mới sáng tạo quốc gia.” *VnExpress*. Oct. 28. <https://vnexpress.net/van-hanh-trung-tam-doi-moi-sang-tao-quoc-gia-4670239.html>
- Quynh Le Tran. 2023.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s New Approach to Accountability.” *The Diplomat*. January 17.
- Strangio, Sebastian. 2023a. “Vietnam’s Parliament Selects Vo Van Thuong as New President.” *The Diplomat*. March 2.
- _____. 2023b. “Vietnam Set to Prosecute 54 Officials Over Reparation Flight Scandal.” *The Diplomat*. April 6.
- _____. 2023c. “Vietnam Communist Party Chief Vows to Hasten Anti-Graft Campaign.” *The Diplomat*. November 24.
- TỔNG CỤC THÔNG KÊ. 2023. “Báo Cáo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Quý IV Và Năm 2023.” December 29. <https://www.gso.gov.vn/bai-top/2023/12/bao-cao-tinh-hinh-kinh-te-xa-hoi-quy-iv-va-nam-2023/>
- _____. 2024. “Sản Xuất Nông, Lâm Nghiệp Và Thủy Sản Năm 2023 - Kết Quả Đạt Được và Khó Khăn Thách Thức.” January 3.
- _____. 2024. “Xuất, Nhập Khẩu Năm 2023 Nỗ Lực Phục Hồi, Tạo Đà Bứt Phá cho Năm 2024.” January 3.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24/01/xuat-nhap-khau-nam-2023-no-luc-phuc-hoi-tao-da-but-pha-cho-nam-2024/>
- _____. 2024. “Tình Hình Thu Hút Đầu Tư Nước Ngoài Năm 2023.” January 9.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24/01/tinh-hinh-thu-hut-dau-tu-nuoc-ngoai-nam-2023/>
- Viet Nam News. 2023. “Việt Nam jumps 12 spots in business environment rankings.” May 30. <https://vietnamnews.vn/>

- economy/1544545/viet-nam-jumps-12-spots-in-business-environment-rankings.html
- Vietnam+. 2023. “10 sự kiện nổi bật của Việt Nam năm 2023 do TTXVN bình chọn.” December 24. <https://www.vietnamplus.vn/10-su-kien-noi-bat-cua-viet-nam-nam-2023-do-ttxvn-binh-chon-post917372.vnp>
- Vu Khang. 2023a. “Overcoming Differences, Looking to the Future: The Next Step for the US-Vietnam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e Diplomat*. September 11.
- _____. 2023b. “Vietnam and China Announce Major Upgrade in Relations During Xi Visit.” *The Diplomat*. December 13.
- VŨ Khuê. 2023. “Tổng mức bán lẻ hàng hóa và doanh thu dịch vụ tiêu dùng năm 2023 phục hồi tích cực.” *VnEconomy*. Dec. 29. <https://vneconomy.vn/tong-muc-ban-le-hang-hoa-va-doanh-thu-dich-vu-tieu-dung-nam-2023-phuc-hoi-tich-cuc.htm>
- Xuân Dung, Hoàng Dương, and Hoàng Hiệp. 2023. “10 sự kiện trong nước nổi bật năm 2023.” *VTV*. Dec. 30. <https://vtv.vn/chinh-tri/10-su-kien-trong-nuoc-noi-bat-nam-2023-2023123022124898.htm>
- 866/QĐ-TTg. 2023.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Quy Hoạch Thăm Dò, Khai Thác, Chே Biển và Sử Dụng Các Loại Khoáng Sản Thời Kỳ 2021 - 2030, Tầm Nhìn Đến Năm 2050.” July 18.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ai-nguyen-Moi-truong/Quyet-dinh-866-QD-TTg-2023-Quy-hoach-tham-do-khai-thac-che-bien-va-su-dung-cac-loai-khoang-san-573087.aspx>

(2024.1.12. 투고, 2024.1.25. 심사, 2024.2.6. 게재확정)

<Abstract>

Vietnam 2023: Economic Sluggishness, Diplomatic Breakthrough, and Political Progress

Yong Ky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Hun BEAK
(Dankook University)

Vietnam's 2023 can be characterized as a year of economic sluggishness, diplomatic breakthrough, and political progress. Vietnam's economic growth in 2023 was lower than expected, hovering around 5%. It suffered from sluggish exports and imports and a slowdown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due to a decline in global aggregate demand. FDI is at an all-time high, driven by global supply chain decoupling and attracting large foreign investors in high-tech industries. Diplomatically, Vietnam's bamboo diplomacy, with its "diversification and multilater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its flexibility in dealing with the US and China, shone through, with the country signing Comprehensive and Strategic Partnerships (CSPs) with the US and Japan and deepening ties with China. Politically, Vo Van Thuong took over as State President, marking a shift in power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continu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and governance renovation program. It is expected that the "Party building and reforming" project,

including a strong anti-corruption fight,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Vietnam, 2023, Bamboo Diplomacy, Comprehensive and Strategic Partnership